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참여자의 임파워먼트 및 자기행동관리에 미치는 영향*

판원화¹ · 민현주^{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박사¹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²

The Effect of Aerobics Instructor's Emotional Intelligence Leadership on Participants' Empowerment and Self-Behavior Management

Fan, Wenhua¹ · Min, Hyunjoo^{2**}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¹ ·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aerobic instructor emotional intelligence leadership on participants' empowerment and self-behavioral managem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350 aerobics participants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were selected as a sample group. The results of analyzing a total of 330 questionnaires used in the analysis for the purpose of data analysis using the SPSS 26.0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the aerobics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leadership had a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all sub-factors of empowerment. Second, the aerobics instructor's emotional intelligence leadership had a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all sub-factors of self-behavior management. Lastly, the empowerment of aerobics participants had a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all subfactors of self-behavior management.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motional intelligence leadership of an aerobics leader is a very important variable that influences individual participants or the group as a whole through achieving the goals of a group of aerobics participants.

Key words : Aerobics instructor, emotional intelligence leadership, empowerment, self-behavior management

* 이 연구는 2022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판원화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 hjmin@gw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는 여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만이 국가의 주된 정책목표가 되던 지난 시절을 지나 이제는 여가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한수정, 조용준, 2010). 과거 여가시간을 TV시청, 영화감상, 수면 등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보냈다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개인의 삶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여가생활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김동원, 현승권 2021).

그 중 생활체육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그리고 삶의 만족 등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보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김현식, 201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2 국민생활체육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8년 62.2%, 2019년 66.6%, 2020년 60.1%, 2021년 66.8%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각종 체육시설 이용의 제한 등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3년 62.4%로 꾸준히 6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인 에어로빅스는 다양한 음악과 함께 신체기능 개선 효과를 가진 유산소운동으로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고 대중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김미숙, 이근모, 이남미, 2010). 무엇보다 에어로빅스의 가장 큰 강점은 재즈, 스텝, 핑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콘텐츠가 접목된 프로그램을 참여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창조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있다(주정철, 조남홍, 조원호, 2012).

이처럼 에어로빅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여러 명이 함께하는 단체운동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며 참여자의 자발성이나 열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적 행동 및 프로그램 숙달에 필요한 지식적 행동도 구사하는 이미지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박철용, 2012). 또한 에어로빅스는 개인지도가 아닌 그룹지도 아래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각 단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리더십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소속된 단체 및 조직 가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김미숙, 이근모, 이남미, 2010).

위대한 지도자들을 추출할 수 있는 요소가 감성지능이며 이것을 토대로 미래의 리더십에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고, 감성지능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감성지능리더십이다. 여기서 감성지능리더십은 즐거운 기분으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배려해 주는 리더십으로 지도자가 자신의 관점에서만 참여자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함으로써 각 구성원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유천남, 2022).

이와 관련하여 김형일, 이은준(2013)은 지도자들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김학덕, 원형진, 지용석(2019)은 대학태권도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선수들의 인지된 경기력을 향상시켜 지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나타났다. 최근 감성지능리더십과 함께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임파워먼트이며(조철규, 김평수, 2018), 이는 조직행동분야 연구에서 조직구성원뿐만 아니라 팀과 조직의 성과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전재균, 2000). 즉, 참여자들로 하여금 소속

된 단체나 조직을 위해 중요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력, 힘, 능력을 부여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과정이다. 이러한 믿음을 참여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지를 키우는 일, 공식적 권한을 위임해 주는 일,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참여자 자신의 영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일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박홍윤, 2015). 때문에 감성지능리더십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임파워먼트는 참여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생활체육 분야의 감성지능리더십 관련 연구는 체육교사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여자중학생의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소민, 2018), 중학교 축구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과 집단응집력의 관계(도경무, 유강원, 2020), 중학교 체육교사의 감성지능리더십이 교사신뢰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장성중, 2021), 중학생이 인식하는 여성체육교사의 감성적 리더십과 지도행동유형이 교사신뢰와 체육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최민희, 2021)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경기력 향상이나 지도효율성, 수업만족도 및 선호도 등과 같은 교육적 성과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행동관리는 참여자 자신이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술이나 전략 등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과정 혹은 자신의 행동과 생활 과제를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Jones, Nelson & Kazdin, 1977; 임우택, 김영재, 2008). 즉, 에어로빅스 참여자들에게 자기관리란 자신의 생활에서 스스로의 통제와 절제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자발적인 자기행동관리는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과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에어로빅스 분야의 학문적 접근과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에 따른

참여자의 임파워먼트와 자기행동관리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감성지능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던 에어로빅스 분야의 학문적 체계 형성과 더불어 생활체육 중목으로써 에어로빅스의 저변확대를 위한 중요한 학문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연구의 의미가 있다.

2. 연구문제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참여자의 임파워먼트 및 자기행동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은 자기행동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는 자기행동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소재 공공체육시설과 사설체육시설 및 에어로빅스 관련 동호회를 통해 에어로빅스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350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2 국민생활체육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 지역이 생활체육 참여인구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에어로빅스 참여자들의 다양한 연령층 확보와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적절한

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대상의 표본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판단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설문 작성자에게 설문 문항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현장에서 연구자가 직접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20부를 제외한 총 330부의 설문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인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30)

문항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155	47.0
	여성	175	53.0
연령	20대	105	31.8
	30대	134	40.6
	40대 이상	91	27.6
참여빈도	주 1회	259	78.5
	주 2회 이상	71	21.5

2. 측정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참여빈도), 감성지능리더십(자아관리능력, 관계관리능력, 자기관리능력), 임파워먼트(유능성, 영향력, 자기결정성, 의미성), 자기행동관리(정신관리, 연습관리, 대인관리, 신체관리)로 구성하였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였다.

감성지능리더십에 관한 문항은 김철구(2008), 김형일, 이은준(2013), 김학덕, 원형진, 지용석(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자아관리능력 4문항, 관계관리능력 3문항, 자기관리능력 4문항 총 11문항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임파워먼트는 Short & Rinehart(1992), Spreitzer(1995)가 개발

한 척도를 기초로 국내 김민환(2003), 나재관(2006), 강희경(2011), 박유찬(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유능성 3문항, 영향력 2문항, 자기결정성 2문항, 의미성 2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행동관리에 관한 문항은 강명구, 유기성(2018), 김주영, 강명구, 최봉준(202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신관리 4문항, 연습관리 4문항, 대인관리 3문항, 신체관리 2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지 문항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으로 직각회전 방법 중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eigenvalue) 1.0 이상,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 .5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표본의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단순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표본적합도(KMO: Kaiser-Meyer-Olkin)를 검토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김계수, 2016).

또한 구성된 변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였으며, 모든 Cronbach's α 값이 .6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감성지능리더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자아의식능력	관계관리능력	자기관리능력	Cronbach's α
문항2 지도자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882	.144	.114	.903
문항4 지도자는 긍정적이다.	.873	.198	.195	
문항3 지도자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855	.186	.150	
문항1 지도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안다.	.790	.210	.041	
문항7 지도자는 참여자들과의 관계와 원칙들을 잘 이해한다.	.190	.837	.134	.746
문항6 지도자는 에어로빅스 참여자들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254	.766	.104	
문항5 지도자는 에어로빅스 참여자들에게 공감한다.	.146	.733	.127	
문항8 지도자의 수업운영과 지도방식에 만족한다.	.082	.079	.773	.732
문항9 현재 나의 에어로빅스 수준에 만족한다.	.084	.223	.749	
문항10 지도자의 책임성에 만족한다.	.209	.067	.732	
문항11 지도자의 기술지도에 만족한다.	.051	.197	.699	
고유값	3.075	2.064	2.304	
분산율(%)	27.953	18.768	20.941	
누적 분산율(%)	27.953	46.721	67.662	

Bartlett의 단위행렬($\chi^2=3395.767$, $df=55$, $p<.000$), KMO=.832

표 3. 임파워먼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유능성	영향력	자기결정성	의미성	Cronbach's α
문항1 나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817	.222	.130	.302	.808
문항2 보통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자신이 있다.	.721	.248	.328	.239	
문항3 나는 보통 하려고 했던 일은 해내는 편이다.	.693	.317	.362	.100	
문항4 내가 소속된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313	.810	.174	.199	.813
문항5 내가 소속된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더 큰 힘이 생긴다.	.243	.784	.288	.232	
문항6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3	.242	.842	.198	.811
문항7 어떤 일이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374	.239	.658	.329	
문항8 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60	.187	.166	.866	
문항9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10	.291	.406	.624	.740
고유값	2.138	1.718	1.703	1.538	
분산율(%)	23.759	19.019	18.918	17.090	
누적 분산율(%)	23.759	42.778	61.696	78.786	

Bartlett의 단위행렬($\chi^2=2243.155$, $df=36$, $p<.000$), KMO=.923

표 4. 자기행동관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정신관리	연습관리	대인관리	신체관리	Cronbach's α
문항2 에어로빅스 참여 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815	.174	.016	.142	.826
문항1 에어로빅스에 참여할 때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782	.267	.082	.144	
문항4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에어로빅스에 참여한다.	.764	.192	.025	.042	
문항3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어로빅스에 참여한다.	.732	.190	.189	.051	
문항6 에어로빅스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128	.801	.138	.132	.762
문항7 에어로빅스 동작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연습을 한다.	.210	.764	.178	.072	
문항5 에어로빅스 활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다.	.357	.657	.006	.175	
문항8 에어로빅스가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낸다.	.279	.532	.182	.153	
문항11 에어로빅스에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126	.216	.754	.011	.620
문항10 에어로빅스에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예의를 잘 지키려고 하는 편이다.	.092	.246	.726	.066	
문항9 에어로빅스 지도자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한다.	.257	.115	.674	.358	.654
문항12 평소 에어로빅스를 위해 건강을 관리한다.	.114	.243	.002	.835	
문항13 평소 에어로빅스를 위해 체중을 조절한다.	.050	.135	.252	.790	
고유값	2.767	2.312	1.741	1.576	
분산율(%)	21.284	17.783	13.389	12.123	
누적 분산율(%)	21.284	39.067	52.456	64.579	

Bartlett의 단위행렬($\chi^2=1512.270$, $df=755$, $p<.000$), KMO=.832

1) 감성지능리더십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4개의 문항으로 선행연구와 각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의 특성에 근거하여 ‘자아 의식능력’으로 명명하였고, 고유값 3.057, 설명력은 27.953%로 나타났으며, 요인 2는 3개의 문항으로 ‘관계관리능력’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 2.064, 설명력은 18.768%로 나타났다. 요인 3은 4개의 문항으로 ‘자기관리능력’으로 명명하였고, 고유값 2.304, 설명력은 20.941%로 나타나 이들의 총 설명력은 67.662%로 확인되었다.

2) 임파워먼트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3개의 문항으로 선행연구와 각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의 특성에 근거하여 ‘유능성’으로 명명하였고, 고유값 2.138, 설명력은 23.759%로 나타났으며, 요인 2는 2개의 문항으로 ‘영향력’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 1.718, 설명력은 19.019%로 확인되었다. 요인 3은 2개의 문항으로 ‘자기결정성’으로 명명하였고, 고유값 1.703, 설명력은 18.918%로 나타

났고, 요인 4는 2개의 문항으로 ‘의미성’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 1.538, 설명력은 17.090%로 나타나 이들의 총 설명력은 78.786%로 확인되었다.

3) 자기행동관리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자기행동관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4개의 문항으로 선행연구와 각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의 특성에 근거하여 ‘정신관리’로 명명하였고, 고유값 2.767, 설명력은 21.284%로 나타났으며, 요인 2는 4개의 문항으로 ‘연습관리’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 2.312, 설명력은 17.783%로 확인되었다. 요인 3은 3개의 문항으로 ‘대인관리’로 명명하였고, 고유값 1.741, 설명력은 13.389%로 나타났고, 요인 4는 ‘신체관리’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 1.576, 설명력은 12.123%로 나타나 이들의 총 설명력은 64.579%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표본집단의 정규분포성과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별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증과 표본적합도(KMO)를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리더십은 $\chi^2=3395.767, p<.000$, KMO 측도는 .832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는 $\chi^2=2243.155, p<.000$, KMO 측도는 .923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행동관리는 $\chi^2=1512.270, p<.000$, KMO 측도는 .832로 나타났다. 표본적합도(KMO)는 일반적으로 .6 이상에서 1.0에 가까운 값일수록 요인분석이 적합하다고 제시한 김계수(2016)의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Windows용 PC/SPSS 26.0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지 구성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연구단위별 척도들에 대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참여자의 임파워먼트 및 자기행동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된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자아의식능력 ¹	1										
관계관리능력 ²	.594**	1									
자기관리능력 ³	.625**	.672**	1								
유능성 ⁴	.596**	.507**	.604**	1							
영향력 ⁵	.534**	.534**	.468**	.548**	1						
자기결정성 ⁶	.620**	.580**	.548**	.478**	.707**	1					
의미성 ⁷	.485**	.540**	.521**	.508**	.641**	.548**	1				
정신관리 ⁸	.540**	.521**	.604**	.631**	.452**	.431**	.468**	1			
연습관리 ⁹	.567**	.597**	.543**	.346**	.358**	.575**	.534**	.468**	1		
대인관리 ¹⁰	.622**	.555**	.699**	.532**	.509**	.661**	.493**	.485**	.565**	1	
신체관리 ¹¹	.525**	.472**	.535**	.564**	.526**	.469**	.541**	.630**	.630**	.659**	1

** $p<.01$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에 앞서 한 중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 임파워먼트, 자기행동관리의 하위요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346~.707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의 값 .8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Challagalla & Shervani, 1996).

2.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참여자의 임파워먼트(유능성, 영향력, 자기결정성, 의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 <표 7>, <표 8>, <표 9>와 같다.

표 6. 감성지능리더십이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1.983	.243	-	8.160***
자아의식능력	.403	.050	.429	8.061***
관계관리능력	.065	.032	.120	2.014*
자기관리능력	.094	.053	.102	1.765

$F=45.335***, R^2=.301, Adjusted R^2=.294$

* $p<.05$, *** $p<.001$

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30.1%($Adjusted R^2=.294$)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감성지능리더십의 하위요인 자아의식능력($\beta=.429, p<.001$)과 관계관리능력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감성지능리더십이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3.135	.278	-	11.290***
자아의식능력	.021	.037	.257	4.217***
관계관리능력	.035	.061	.039	.574
자기관리능력	.035	.061	.038	.574

$F=9.983***, R^2=.087, Adjusted R^2=.078$

*** $p<.001$

<표 7>과 같이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8.7%($Adjusted R^2=.078$)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감성지능리더십의 하위요인 자아의식능력($\beta=.257, p<.001$)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감성지능리더십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349	.241	-	1.449
자아의식능력	.260	.050	.235	5.248***
관계관리능력	.052	.032	.082	1.633
자기관리능력	.697	.053	.638	13.154***

$F=107.039***, R^2=.540, Adjusted R^2=.499$

*** $p<.001$

아울러 <표 8>과 같이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54.0%($Adjusted R^2=.078$)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감성지능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관리능력($\beta=.638, p<.001$)과 자아의식능력($\beta=.235, p<.001$)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감성지능리더십이 의미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3.523	.296	-	11.896***
자아의식능력	.170	.061	.172	2.791**
관계관리능력	.071	.039	.126	1.813
자기관리능력	.030	.065	.031	.462

F=6.437***, R²=.058, Adjusted R²=.049

p<.01, *p<.001

<표 9>와 같이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의미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5.8%(Adjusted R²=.049)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감성지능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관리능력(β =.172, p<.01)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자기행동관리에 미치는 영향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참여자의 자기행동관리(정신관리, 연습관리, 대인관리,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 <표 11>, <표 12>, <표 13>과 같다.

표 10. 감성지능리더십이 정신관리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2.083	.273	-	7.617***
자아의식능력	.127	.056	.124	2.262*
관계관리능력	.153	.036	.259	4.221***
자기관리능력	.244	.060	.240	4.061***

F=37.228***, R²=.261, Adjusted R²=.254

*p<.05, ***p<.001

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자기행동관리의 하위요인 정신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26.1%(Adjusted

R²=.254)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감성지능리더십의 하위요인 관계관리능력(β =.259, p<.001), 자기관리능력(β =.240, p<.001), 자아의식능력(β =.124, p<.05)의 순으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감성지능리더십이 정신관리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3.026	.269	-	11.266**
자아의식능력	.156	.055	.172	2.817**
관계관리능력	.038	.036	.073	1.071
자기관리능력	.200	.059	.223	3.377***

F=9.550***, R²=.083, Adjusted R²=.074

p<.01, *p<.001

<표 11>과 같이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자기행동관리의 하위요인 연습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8.3%(Adjusted R²=.074)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감성지능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관리능력(β =.223, p<.001)과 자아의식능력(β =.172, p<.01)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감성지능리더십이 대인관리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1.890	.301	-	6.279***
자아의식능력	.316	.062	.291	5.093***
관계관리능력	.004	.040	-.007	.109
자기관리능력	.264	.066	.246	3.979***

F=25.412**, R²=.194, Adjusted R²=.187

***p<.001

아울러 <표 12>와 같이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자기행동관리의 하위요인 대인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19.4%(Adjusted R²=.187)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감성지능리더십의 하위요인 자아의식능력(β =.291, p<.001)과 자기관리능력(β =.246, p<.001)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감성지능지터십이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2.391	.311	-	7.697***
자아의식능력	.150	.064	.135	2.340*
관계관리능력	.142	.041	.223	3.431***
자기관리능력	.178	.068	.162	2.597*

$F=22.752***$, $R^2=.178$, $Adjusted R^2=.170$

* $p<.05$, ** $p<.01$

<표 13>과 같이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지터십이 자기행동관리의 하위요인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17.8%($Adjusted R^2=.170$)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감성지능지터십의 하위요인 관계관리 능력($\beta=.223$, $p<.001$), 자기관리능력($\beta=.162$, $p<.05$), 자아의식능력($\beta=.135$, $p<.05$)의 순으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가 자기행동관리에 미치는 영향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가 (정신관리, 연습관리, 대인관리,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 <표 15>, <표 16>과 같다.

표 14. 임파워먼트가 정신관리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639	.312		2.045*
유능성	.315	.059	.288	5.355***
영향력	.117	.058	.106	2.018*
자기결정성	.264	.046	.284	5.799***
의미성	.149	.053	.143	2.810**

$F=39.593***$, $R^2=.335$, $Adjusted R^2=.326$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표 14>와 같이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가 자기행동관리의 하위요인 정신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33.5%($Adjusted R^2=.326$)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유능성($\beta=.288$, $p<.001$), 자기결정성($\beta=.284$, $p<.001$), 의미성($\beta=.143$, $p<.01$), 영향력($\beta=.106$, $p<.05$)의 순으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임파워먼트가 연습관리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1.947	.302		6.436***
유능성	.237	.057	.246	4.168***
영향력	.038	.056	.040	.684
자기결정성	.076	.044	.093	1.729
의미성	.212	.052	.230	4.108***

$F=19.401***$, $R^2=.198$, $Adjusted R^2=.197$

*** $p<.001$

<표 15>와 같이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가 자기행동관리의 하위요인 연습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19.8%($Adjusted R^2=.197$)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유능성($\beta=.246$, $p<.001$)과 의미성($\beta=.230$, $p<.001$)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임파워먼트가 대인관리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1.491	.351		4.253***
유능성	.112	.066	.097	1.705
영향력	.093	.065	.080	1.432
자기결정성	.406	.051	.414	7.928***
의미성	.058	.060	.053	.969

$F=25.661***$, $R^2=.246$, $Adjusted R^2=.236$

*** $p<.001$

아울러 <표 16>과 같이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가 자기행동관리의 하위요인 대인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24.6%(Adjusted R²=.236)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자기결정성($\beta=.414, p<.001$)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임파워먼트가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상수)	1.587	.374		4.241***
유능성	.209	.070	.177	2.965**
영향력	.003	.069	.003	.046
자기결정성	.176	.055	.176	3.232**
의미성	.263	.064	.234	4.126***

F=16.999***, R²=.177, Adjusted R²=.166

p<.01, *p<.001

<표 17>과 같이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가 자기행동관리의 하위요인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약 17.7%(Adjusted R²=.166)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의미성($\beta=.234, p<.001$), 유능성($\beta=.177, p<.001$), 자기결정성($\beta=.176, p<.01$)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은 참여자임파워먼트(유능성, 영향력, 자기결정성, 의미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도자리더십이 인지, 비전 제시, 경청, 치유,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이 임파워먼트의 자기 결정력, 역할수행 능력, 의미성, 영향력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수연(2010)의 연구, 감성지능리더십은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도자의 감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운동성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김학덕, 원형진, 지용석(2019)의 연구, 조직 단위에서 의사결정의 구조와 적절한 피드백, 개개인의 능력을 지지해주는 감성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임파워먼트 모든 요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시한 안수현(2011)의 연구, 태권도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높을수록 선수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자기결정력과 조직내에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및 의미성의 지각 수준이 향상된다고 밝힌 조철규, 박수현, 김평수(2018)의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즉, 에어로빅스 지도자는 참여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참여자 집단에 대한 분위기를 인식하고, 참여자들의 생각, 감정, 동기 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먼저 술선수범하는 행동과 표현으로 참여자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지도자의 노력은 감성지능리더십을 통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에어로빅스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집단의 공동체적 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2.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과 자기행동관리의 관계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은 참여자자기행동관리(정신관리, 연습관리, 대인관리, 신체관리)의 모든 하위요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숙, 남정훈(2012)

은 대학 태권도 선수들에게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삶과 직무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충만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전반적인 과정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지를 형성하여 경기와 훈련 및 선수생활 전반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운동만족 및 자기행동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임을 주장하였으며, 조철규, 박수현, 김평수(2018)는 지도자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감성지능리더십은 선수들의 효율적인 운동수행을 위한 중요 역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효은(2010) 또한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은 선수들이 지각하는 자기행동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선수의 자기행동관리 능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참여자들의 동기를 강화시며, 강화된 동기는 운동수행능력 향상 및 자기행동관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자기행동관리 능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자는 독단적으로 확증편향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참여자들과의 양방향적 소통을 통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김옥주, 류충완, 2017; Sullivan & Feltz, 2003).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은 지도자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운동수행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역량을 높여 심리요인들을 조절함으로써 자기관리능력의 효과를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와 자기행동관리의 관계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는 자기행동관리의 모든 하위요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homas & Tymon(1994)은 임파워먼트가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의 향상과 더불어 구성원들 개인의 업무수행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다고 밝힌 바 있으며, 허정훈(2001)은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의 자기행동관리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임파워먼트와 자기행동관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 및 자기관리능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자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에어로빅스 참여집단 내에서의 영향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에어로빅스 지도자가 에어로빅스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참여자들로 하여금 에어로빅스 참여에 대한 가치와 개인적 목표 지표는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에어로빅스 지도자는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가 자기행동관리능력에 중요한 변수임을 인식하여 운동수행의 목표와 수행과정을 참여자 스스로가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여 한다. 이는 에어로빅스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율성을 경험하게 하여 내적동기를 강화시킴으로써 임파워먼트를 통한 자기행동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에어로빅스 지도자 감성지능리더십이 참여자의 임파워먼트 및 자기행동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에어로빅스 분야의 부족했던 감성지능리더십에 관한 학문적 지식체계 형성과 더불어 에어로빅스 분야의 저변확대를 위한

중요한 학술적 기초자료로 제공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은 참여자 임파워먼트(유능성, 영향력, 자기결정성, 의미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은 참여자 자기행동관리(정신관리, 연습관리, 대인관리, 신체관리)의 모든 하위요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에어로빅스 참여자의 임파워먼트는 자기행동관리의 모든 하위요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은 에어로빅스 참여자로 구성된 집단의 목표 달성을 통해 참여자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영향을 행사하는 지도자의 행동유형으로 에어로빅스 참여 집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에어로빅스 지도자는 참여자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리더십 역량 개발에 힘써 참여자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며, 에어로빅스 활동에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에어로빅스 참여자만을 표본집단으로 제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에어로빅스 참여자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에 따른 참여자의 임파워먼트 및 자기행동관리에만 초점을 맞춰 연

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에어로빅스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개인적 특성과 지도자의 리더십 형태 사이에 어떠한 상호 영향 관계가 작용하는지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한 양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 외에 측정 불가한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들의 작용까지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심층면담 등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한 통합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명구, 유기성(2018). 휘트니스센터 지도자의 멘토링 역할이 참여자의 스포츠 자신감 및 자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6(1), 147-157.
- 강희경(2011).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교사의 임파워먼트 및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김계수(2016).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 김동원, 현승권(2021).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생활체육 실천 선진화 방안 연구회.
- 김미숙, 이근모, 이남이(2010).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이미지가 참여만족도 및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9(6), 51-64.
- 김민환(2003). 학교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교사 임파워먼트가 교사들의 교직 활동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학회지**, 20(3), 89-115.
- 김수연(2010). **태권도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에 따른 임파워먼트와 운동몰입 및 경기력의 인과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 김우중(2012). **직장체육 축구동호회 참여자의 여가 정체성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옥주, 류충완(2017). 축구선수의 팀 문화유형이 의사소통과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5), 69-82.
- 김주영, 강명구, 최봉준(2020). 무도스포츠를 전공하는 대학선수들의 자기관리행동이 자신감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8(3), 1039-1048.
- 김철구(2008). **학교장의 감성적 리더십과 교사의 감성지능 및 직무만족이 교사의 학교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김학덕, 원형진, 지용석(2019).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감성지능리더십이 지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21(1), 14-25.
- 김현식(2011). 생활체육지도자의 수업지식과 전문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3, 13-25
- 김형일, 이은준(2013). 중간경영자의 리더십유형과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텔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5(4), 163-169.
- 나재관(2006). **조직분위기가 중등학교 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도경무, 유강원(2020). 학교 축구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의 감성적리더십과 집단응집력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8(3), 1329-1338.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 국민생활체육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
- 박유찬(2012). **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조직문화와 직무특성이 임파워먼트 및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철용(2012).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이미지에 따른 자아성취감, 심리적 행복감 및 참여 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3), 47-60.
- 박홍윤(2015). **조직문화 기업문화**. 유페이퍼.
- 송효은(2010). 태권도 선수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운동 스트레스와 자율성 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8(1), 935-945.
- 안수현(2011). **학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사의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천남(2022). **중국 대학 태권도지도자의 감성지능 리더십이 리더신뢰, 동일시, 지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 남정훈(2012).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구조관계.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3), 317-331.
- 이소민(2018). **체육교사의 감성적 리더십이 여자중학생의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교사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우택, 김영재(2008). 대학골프선수들의 정신력요인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2(2), 1137-1144.
- 장성중(2021). **중학교 체육교사의 감성적 리더십이 교사신뢰 및 회복탄 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전재균(2000). 체인레스토랑 종업원 임파워먼트의 구성타당성 검증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2), 199-212.
- 조철규, 박수현, 김평수(2018). 대학태권도 지도자의 감성리더십이 임파워먼트 및 자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2), 401-410.
- 주정철, 조남홍, 조원호(2012).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이미지가 고객만족 그리고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0, 261-274.
- 최민희(2021). **중학생이 인식하는 여성체육교사의 감성적 리더십과 지도행동유형이 교사신뢰와 체육수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수정, 조용준(2010).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여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2(1), 213-232.
- 허정훈(2001). **운동선수 자기관리 측정도구의 구조적 타당화와 인과모형검증**.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Challagalla, G. N., & Shervani, T. A. (1996). Dimensions and Types of Supervisory Control: Effects on Salesperso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60(1), 89-105.
- Jones, R. T., & Nelson, R. E., & Kazdin, A. E. (1977). The role of external variables in self reinforcement: A review. *Behavior Modification*, 1, 147-178.
- Short, P. M., & Rinehart, J. S. (1992). School participant empowerment scale: Assessment of level of empowerment within school environment.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951-960.
- Spreitzer, G. M.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5), 1442-1465.
- Sullivan, P., & Feltz, D. L. (2003).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 Team Sports (SEC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8), 1693-1715.
- Thomas, K. W., & Tymon, W. G. J. (1994). Does empowerment always work: Understanding the role of intrinsic motivation and personal interpretation. *Journal of Management Systems*, 6, 1-13.
- Sullivan, P., & Feltz, D. L. (2003).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 Team Sports (SEC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8), 1693-1715.
- Thomas, K. W., & Tymon, W. G. J. (1994). Does empowerment always work: Understanding the role of intrinsic motivation and personal interpretation. *Journal of Management Systems*, 6, 1-13.

논문투고일 : 2024. 07. 08.

심사일 : 2024. 07. 19.

게재확정일 : 2024. 08. 06.